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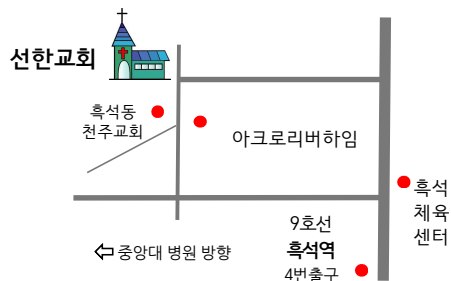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오전 10: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주일 오후	3:30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0: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0: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0: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0: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0: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교육목사 정용준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윤영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 로		관 리 장 로	
		손석규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 11:3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찬 양 과 경 배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장 32~40절			요 18:1~11
설 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임춘배 목사)			사랑으로 사는 인생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윤국로 집사 가정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다 함께
말	씀	요한일서 4장 7~11절
설	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2부: 성탄절 칸타타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74편 1~23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는 드보라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성 탄 절 칸 타 타	절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3. 3 부 예 배	배	오늘 3부 예배(청년부)는 칸타타 리허설로 인해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4. 성 탄 절 행 사	절	* 24일(주일) 오후 예배 성탄절 전야제 * 25일(월) 오전 11시 성탄축하예배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	--	---

가정예배		소금인형
찬양	'목마른 자들아' 526장(통316)	
본문	이사야 55장 1~3절	
말씀	바다를 그리워하는 소금인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금인형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철썩이며 인형의 발과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인형은 아팠습니다. 이어서 바닷물은 인형의 허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다음은 가슴을, 그다음은 목을, 마침내 바닷물은 인형의 머리까지 가져갔습니다. 격렬한 고통 속에 바닷물에 잠기는 순간 소금인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어, 내가 바다인 것을! 나는 바다야.” 우리는 ‘목마른 소금인형’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한 모금의 물에 목말라 하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까지 주신 멋진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보이게 되어 동산 나무 아래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참 만족과 평강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갈급한 존재로서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보려 합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권력으로 채워보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프랑스 신학자 블레즈 파스칼(1623~1662)이 말 한대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후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갈망을 만족시킬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더는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해결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 갈망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금인형처럼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성탄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히 11:32~40)	
서 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	
	(1)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선조들 (32~34절)	
	(2)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선조들 (35~38절)	
	(3)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 (39~40절)	
	2. 교훈	
	(1) 믿음으로 이루어낸 역사들은 어떤 것인가?	
	(2)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3) 내가 보여야 할 큰 믿음은 어떤 것인가?	
결 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이소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석범 집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게으름과 다툼이 아닌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날짜 : 12월 18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본문	잠언 26:13~28		
말씀요약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힘들어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배 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꾸미나 속으로는 속임을 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지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합니다.		
묵상질문 1	게으름에 대한 풍자 26:13~16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반복하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나요?(14절) 내가 단호하게 떨쳐 버릴 게으른 습관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불필요한 간섭과 부적절한 말 26:17~28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무엇과 같나요?(23절)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할까요?		
한절묵상	잠언 26장 20~21절 말은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같이 다른 말을 만들어 내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은 악한 말을 낳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며 죄를 일으킵니다. 다툼과 화해, 상처와 회복, 선과 악, 죄와 거룩함 중에 나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말을 낳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에는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게으름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에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소문과 분란을 일으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관해 말하기를 즐기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찬양과 기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목사님은 영력이 너무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없어도 너~무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없어도 너~무 없어요.”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영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지 않았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충분히 슬퍼하는 사람은 누가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미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뻔뻔하게 서서 다니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 이재훈,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두란노)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사랑의 권고에 분노를 느낀 경험이 있나요?
말씀 나누기	잠언 27:1~12
묵상포인트	지혜로운 자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소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권고는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 우리를 성숙하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진실한 권고를 해 주는 참다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세우며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름과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성도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성도에게 칭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1~2절)
적용하기	내일 일을 자랑했다가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경우가 있었나요? 성도는 내일 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저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매 순간 제 삶을 인도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충고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도 허락해 주소서.
기도	

매일 Q.T.		탐욕을 버리고 성실과 충성으로	날짜 : 12월 22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본문	잠언 28:15~28		
말씀요약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 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지만,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묵상질문 1	성실하고 충성된 삶 28:15~20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19절)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지금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멀리해야 할 탐욕 28:21~28 악한 눈으로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22절)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정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8장 22절 탐욕은 사람을 허무한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합니다. 탐욕을 채우려는 헛된 목표는 사람의 눈을 가려 곳곳에 영적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따리를 틔 교만도, 가련한 빈곤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체와 이웃도, 자신을 향한 무한한 은혜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리고 질주하는 사람과 같은 악인은, 발밑에 있는 장애물과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못 봅니다. 결국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그를 해치는 울무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신의 재물과 권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탐욕과 방탕함에 빠진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매일 Q.T.		자랑과 질투를 버리고 권고를 달게 받는 삶	날짜 : 12월 19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본문	잠언 27:1~12		
말씀요약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남이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고, 가까운 이웃의 먼 형제보다 낫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묵상질문 1	헛된 자랑과 칭찬의 위험 27:1~6 분노보다 질투심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4절)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묵상질문 2	상황 파악의 중요성 27:7~12 잠언 기자는 친구의 충성된 고고를 무엇에 비유하나요?(9절)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7장 6,9절 진정한 우정은 달콤한 말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를 위해 아픈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우정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친구의 건강한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얻을 이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원수의 입맞춤과도 같은 달콤한 거짓을 경계하고, 아프지만 자신을 위한 책망의 말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며 세상 자랑과 자존심과 질투에 눈먼 분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고, 친구를 위해 진실한 책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 상황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은혜를 주소서.		

매일 Q.T.		친구를 빛나게 하고 양 떼를 보살피는 삶	날짜 : 12월 20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끄리어		
본문	잠언 27:13~27		
말씀요약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습니다. 자기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야 합니다. 어린양의 털은 옷이 되며 염소는 발을 사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27:13~19 친구 관계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7절) 친구의 성장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자족하면서 돌보는 삶 27:20~27 양 떼와 소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3, 26~27절) 내가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보살필 이들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7장 19절 사람의 마음과 겉모습은 나뉘지 않습니다. 물과 거울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이듯,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 15:18; 눅 6:45).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겉과 속은 점점 같아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인격의 깊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경건 훈련으로 신앙의 성숙을 맛보게 하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Q.T.		말씀을 즐겨 듣고 죄를 자백하는 삶	날짜 : 12월 21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본문	잠언 28:1~14		
말씀요약	악인은 추격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한 자로 인해 오래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묵상질문 1	의인의 선한 영향력 28:1~7 부유한 악인과 가난한 의인 중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요?(6절) 구부러진 길을 버리고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묵상질문 2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리는 삶 28:8~14 자기 죄를 숨기는 자와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13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버릴 죄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8장 13절 죄를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추악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름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허물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솔직함은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은혜를 채우는 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따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의로운 지도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세우셔서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작은 죄도 민감하게 살피는 거룩한 마음과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